

국제리뷰

- **미국 대통령선거와 여풍(女風)**
김은주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젠더 관점의 개발협력 사업 접근 방식 : 한국 월드비전 케냐 북테소 지역 여아 역량강화 사업 중심으로**
최정윤 | 한국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과장
이수민 | 한국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과장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미국 대통령선거와 여풍(女風)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2020년 11월 3일,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에 재선 출마를 선언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포함한 20여명이 넘는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민 민주당도 TV토론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이날 대통령 선거인단선거와 더불어 미국 연방의회 상·하의원 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다가올 미국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트럼프 이후 미국의 전향적인 대외전략의 전환은 미국 우선정책(America First!)의 기치 하에 전통적인 우방관계나 대외정책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에 대한 트럼프의 다른 접근은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미국 대통령선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어쨌든 내년에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은 3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와 힐러리 클린턴

2016년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의 핵심은 여풍(女風)이었다.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주요 정당의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고,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지명되었다. 선거기간 내내 발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최종결과는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였다. 득표수에 있어서는 힐러리 클린턴 48.2%, 도널드 트럼프 46.1%로 클린턴이 우세했으나 선거인단 확보

* 현재 한국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통일부 통일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자문위원, 국무총리 여성정책조정회의 위원,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함.

〈표 1〉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대통령후보	부통령 후보	정당	득표수	득표율	선거인단	선거인단 비율
도널드 트럼프	마이크 펜스	공화당	62,984,828	46.09%	306	56.88%
힐러리 클린턴	팀 케인	민주당	65,853,514	48.18%	232	43.12%
게리 존슨	윌리엄 웰드	자유당	4,440,871	3.29%	0	
질 스타인	아자무 바라카	녹색당	1,415,982	1.05%	0	
에번 맥멀린	민디 핀	무소속	568,726	0.42%	0	
대럴 캐슬	스콧 브래들리	헌법당	193,864	0.14%	0	
기타			1,114,732	0.82%	0	
합계			135,126,933	100.00 %	538	

출처: State Elections Offices, OFFICIAL 2016 PRESIDENTIAL GENERAL ELECTION RESULTS General Election, January 30, 2017.

〈표 2〉 CNN의 2016년 미국대통령선거 출구조사결과

구분	클린턴	트럼프	기타	비율
전체 투표	47.7	47.5	4.8	100
성별				
남자	41	52	7	47
여자	54	41	5	53
성별 및 결혼 상태				
기혼 남자	38	57	5	29
기혼 여자	49	47	4	30
미혼 남자	46	44	10	18
미혼 여자	63	32	5	23
인종				
백인	37	57	5	71
흑인	89	8	3	12
히스패닉	66	28	6	11
아시안	65	27	8	4
기타	56	36	8	3

출처: CNN의 "2016 Election Results: National Exit Polls
(<https://edition.cnn.com/election/2016/results/exit-polls/national/president>)

에서 클린턴 232명, 트럼프 306명으로 트럼프가 승리했다. 득표수에서 상대 후보를 밀든 후보가 선거인단 확보에 승리해 대통령에 최종 선출된 것은 조지 부시가 앨 고어에게 승리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16년만이었다.

최초의 미국 여성대통령의 탄생을 기대하며 선거결과를 지켜보던 세계 여성들이 받은 충격은 대단했다. 2016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되지 못했어도 그 때 다져놓은 여풍의 저력은 2018년 중간선거를 통해 폭발하였다.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던 그 세대들의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CNN이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실시했던 출구조사에 의하면 클린턴은 여성, 그 중에도 미혼여성,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인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클린턴 지지자들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고 더 나아가 대표되지 못했던 미국 정치에서 묵이 없었던 자들로서 클린턴과 함께 정치의 장으로 들어온 새로운 미국 시민들이었다. 클린턴 지지층은 다양성 그 자체였다. 함께 하면 더 강해진다(Stronger Together!)는 클린턴 후보진영의 슬로건처럼, 2016년 대통령 선거는 다양한 소수 집단, 특히 여성들의 정치세력화를 촉진시켰고 그 결과는 2018년 중간선거에서 가시화되었다.

2018년 중간선거, 여성 새로운 역사를 쓰다.

미국의 연방 상원의회는 각주마다 2명을 선출하고,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2년에 한 번씩 상원의 3분의 1에 대한 선거가 실시된다. 연방 하원의원은 총 435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상·하원의원 선거를 중간선거라고 한다. 2018년 중간선거 결과는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여 연방의회를 분점 했고,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의 다수당이 되었다. 특히 2018년 선거는 후보자부터 당선자에 이르기까지 역대 최고의 다양성을 드러냈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후보의 58%는 여전히 ‘백인남성’이지만, 나머지 42%는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의 비백인 인종이었다.(뉴욕타임즈 2018년 10월 31일자 기사, The Faces of Change in the Midterm Elections)



오카시오-코르테스



라시다 틀라입



일한 오마르



덱 하랜드



샤리스 데이비스



아야나 프레슬리

2018년 중간선거의 최대 이슈는 단연 여성이었고, 그 결과, 여성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가장 주목을 끌었던 당선자는 뉴욕 주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로 80%에 달하는 득표율을 보이며 미국에서 가장 어린 여성 하원의원(만 29세)이 되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푸에르토리코의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이지만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DSA) 소속이기도 하다. 그녀는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 ‘무상교육’, ‘인권으로써 주택 공급’, ‘이민자 보호’, ‘선거캠페인 개혁’, ‘뉴 그린 딜’(2035년까지 미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모두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등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또 하나의 사건은 무슬림 여성 2명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이 되었다. 민주당 소속의 미시간 주의 라시다 틀라립(Rashida Harbi Tlaib)과 미네소타 주의 일한 오마르(Ilhan Omar)이다. 라시다 틀라립은 팔레스타인 이민자 가정의 출신이고 일한 오마르는 아프리카 소말리아계이다. 또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원주민 여성 출신 연방 하원의원도 나왔다. 뉴멕시코 주의 덱 하랜드(Deb Haaland)와 캔자스 주의 샤리스 데이비스(Sharice Davids)이다. 샤리스 데이비스는 최초의 레즈비언 하원의원이기도 하다. 아야나 프레슬리(Ayanna Soyini Pressley)는 메사추세츠 주의 첫 흑인여성 하원의원이 되었고, 재러드 폴리스(Jared Polis)는 콜로라도 주지사로서 미국 역사상 첫 동성애자 출신 주지사가 되었다.

이 여성들은 그동안 미국정치에서 뭉이 없던 집단과 목소리를 대변한다. 특히 일한 오마르는 미국 정계에서 터부시되어 왔던 미 정부의 친 유대정책과 유대 단체들의 금권로비 등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반유대주의 논쟁의 정점에 서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일한 오마르의 행보에 동참하는 민주당내 비백인·진보·여성초선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와 라시다 틀라립, 아야나 프레슬리에 대해 출신지로 돌아가라는 인종 차별주의적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민주당 내에서도 중진의원들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 남은 1년여의 시간 동안 이들의 행보는 당 안팎으로 한층 더 신선한 파란과 고강도의 충격파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표 3〉 상·하원 선거 출마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2006-2018)

연도		상원						하원**					
		후보자 전체	민주	공화	당선자 전체	민주	공화	후보자 전체	민주	공화	당선자 전체	민주	공화
2018	전체	23	15	8	14	11	3	235	183	52	102	89	13
	현직	13	11	2	11	9	2	71	54	17	66	54	12
	도전자	6	2	4	1	1	0	117	95	22	15	15	0
	공석*	4	2	2	2	1	1	47	34	13	21	20	1
2016	전체	15	11	4	6	5	1	167	120	47	83	62	21
	현직	3	1	2	2	1	1	73	54	19	73	54	19
	도전자	8	7	1	2	2	0	76	52	24	2	2	0
	공석	4	3	1	2	2	0	18	14	4	8	6	2
2014	전체	15	10	5	4	1	3	159	109	50	84	62	22
	현직	4	3	1	2	1	1	73	56	17	72	55	17
	도전자	4	3	1	0	0	0	68	42	26	2	1	1
	공석	7	4	3	2	2	0	18	11	7	10	6	4
2012	전체	18	12	6	11	10	1	163	116	47	78	58	20
	현직	6	6	0	6	6	0	66	45	21	59	42	17
	도전자	4	2	2	1	1	0	68	52	16	4	4	0
	공석	8	4	4	4	3	1	29	19	10	15	12	3
2010	전체	14	9	5	5	4	1	138	91	47	72	48	24
	현직	5	5	0	4	4	0	69	54	15	59	44	15
	도전자	4	2	2	0	0	0	57	27	30	8	1	7
	공석	5	2	3	1	1	0	12	10	2	5	3	2
2008	전체	7	4	3	4	3	1	132	95	37	74	57	17
	현직	3	1	2	2	1	1	67	50	17	64	49	15
	도전자	4	3	1	2	2	0	54	36	18	5	4	1
	공석	0		0	0	0	0	11	9	2	5	4	1
2006	전체	12	8	4	8	6	2	136	94	42	71	50	21
	현직	6	4	2	6	4	2	65	42	23	61	42	19
	도전자	5	3	2	1	1	0	53	40	13	3	3	0
	공석	1	1	0	1	1	0	18	12	6	7	5	2

출처: Election Watch of Center for American Women and Politics(CAWP홈페이지 검색일 2019.8.25.)

* 공석(open seat)은 현직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선거구 출마자를 의미함.

** 하원의 통계에는 Washington, DC와 5개 해외속령의 대리인(delegate)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미국의 연방의회 선거는 2년마다 상원의원 34명, 하원의원 435명 총 469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위의 〈표 3〉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연방의회선거출마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에 관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상원의원의 경우, 2018년에 출마한 여성후보는 23명으로 이중 14명(61%)이 당선하였다. 후보자와 당선자를 포함한 이 수치는 지난 2006년 이후 7번에 걸친 상원의원 선거 중에서 최고로 높았고, 당선자에 있어서는 2016년 선거에 비해 2배나 높았다. 그 중 현직의 당선율이 85%로 가장 높았다. 민주당은 15명 출마,

11명 당선으로 73%, 공화당은 8명 출마 3명 당선으로 38%의 당선율을 각각 보였다. 하원 의원의 경우, 235명의 여성 후보가 출마했으며 이중 102명(79%)이 당선했다. 이 결과는 상원의원선거결과와 마찬가지로 2006년 이후 최고의 성과였으며, 2016년 선거에 비해 후보자는 68명이 더 출마하였고, 당선자는 19명이 더 당선되었다. 당선율에 있어서도 현직이 93%, 현직 출마지역 도전자는 13%, 현직 비출마지역 도전자는 45%로 상하양원 모두 현직 여성의원들의 당선율이 높아, 현직 프리미엄의 효과가 매우 컸다. 2016년 하원선거의 경우 현직의원 73명 전원이 당선하는 일도 있었다. 민주당은 183명 출마 89명 당선 공화당은 52명 출마 13명 당선으로 각각 49%와 25%의 당선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상하양원 출마자 및 후보자에 있어 민주당 소속 여성 후보들이 더 많았다.

116대 연방의회와 주의회에서의 여성 대표성

2018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성격차지수에 의하면 미국의 정치권한지표에서의 남녀간 성격차지수는 149개 국가 중 98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92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2018년 11월 6일에 치러진 선거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순위이므로 2019년의 성격차지수에서 정치권한지수는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3일 116대 연방의회가 개원했다. 상원 100명, 하원 435명 총 535명 중 127명인 23.7%가 여성이었고 하원의회의장으로 낸시 펠로시(민주당)가 선출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역대 최고였고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 럿거스대학교의 미국여성정치연구

〈표 4〉 106대~116대 미 연방의회 여성의원 현황(1999~2019)

의회	연도	전체여성의원 수	상원여성의원수	하원여성의원수	여성비율
106th	1999-2001	67	9	58	12.5%
107th	2001-2003	75	13	62	14.0%
108th	2003-2005	77	14	63	14.4%
109th	2005-2007	85	14	71	15.9%
110th	2007-2009	94	16	78	17.6%
111th	2009-2011	96	17	79	17.9%
112th	2011-2013	96	17	79	17.9%
113th	2013-2015	101	19	82	19.1%
114th	2015-2017	104	16	88	19.4%
115th	2017-2019	104	15	89	19.4%
116th	2019-2021	127	25	102	23.7%

출처: Election Watch of Center for American Women and Politics(CAWP홈페이지 검색일 2019.8.25.)

소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역대 연방의회에서 활동했던 여성 의원은 총 358명으로 민주당 243명, 공화당 115명이었다. 이중 유색인종은 74명으로 민주당 70명, 공화당 4명이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총 43명으로 여성 의원을 가장 많이 배출하였고 뉴욕이 29명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버몬트 주는 현재까지 상원이든 하원이든 단 한 명의 여성 의원도 배출하지 않았다. 지난 20년간의 연방의회에서의 여성 의원 현황을 보면 위의 <표4>와 같다. 103대 의회인 1993년에 여성 의원의 비율이 10.1%로 처음으로 두 자리 수로 진입하였고 그 후 25년여 만에 20%대에 진입하였다.

116대 연방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127명의 여성 의원의 정당 소속을 보면 민주당 106명, 공화당 21명으로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이 공화당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25명의 여성들(25%)이 상원에서 복무하고 있고, 하원에서는 102명의 여성들(23.4%)이 활동하고 있다. 127명 중 47명(37%)이 유색인종으로, 흑인 22명, 라틴 13명, 아시아태평양 8명, 원주민 2명, 기타 2명이었다. 하원의회의 경우 34개 주에서 여성 의원을 배출하였고 민주당 89명(87%), 공화당은 13명(23%)이었다. 102명 중 89명(87%)이 초선이었고, 58명(57%)은 직전에 선출공직에 있었고, 23명(23%)은 한 번 이상 주 상·하원의원, 군이나 시 의원, 판사, 학교이사 등과 같은 선출 공직을 경험했다. 결과적으로 116대 연방의회의 여성대표성은 초선의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이끌고 있다.

<표 5> 2019년 주의회 여성 의원 현황

주명	순위	상원			여성/전체		하원*			여성/전체		상·하 여성/상·하 전체		상·하 여성 의원 비율
		민주	공화	무소속			민주	공화	무소속					
AL	46	4	0	-	4	35	11	7	-	18	105	22	140	15.7
AK	8	1	5	-	6	20	6	11	-	17	40	23	60	38.3
AZ	6	7	6	-	13	30	14	8	-	22	60	35	90	38.9
AR	40	3	4	-	7	35	8	17	-	25	100	32	135	23.7
CA	20	11	3	-	14	40	21	2	-	23	80	37	120	30.8
CO	2	12	1	-	13	35	26	8	-	34	65	47	100	47
CT	15	8	1	-	9	36	30	23	-	53	151	62	187	33.2
DE	35	4	1	-	5	21	9	1	-	10	41	15	62	24.2
FL	23	6	6	-	12	40	23	13	-	36	120	48	160	30
GA	22	13	2	-	15	56	42	15	-	57	180	72	236	30.5
HI	18	7	0	-	7	25	14	3	-	17	51	24	76	31.6
ID	19	4	5	-	9	35	7	17	-	24	70	33	105	31.4
IL	12	18	2	-	20	59	35	8	-	43	118	63	177	35.6
IN	36	2	7	-	9	50	17	10	-	27	100	36	150	24
IA	25	6	5	-	11	50	23	10	-	33	100	44	150	29.3
KS	28	6	8	-	14	40	17	15	-	32	125	46	165	27.9

주명	순위	상원			여성/전체		하원*			여성/전체		상·하 여성/상·하 전체		상·하여 성의원 비율
		민주	공화	무소속			민주	공화	무소속					
KY	41	2	2	-	4	38	18	9	-	27	100	31	138	22.5
LA	44	3	2	-	5	39	8	10	-	18	105	23	144	16
ME	9	8	4	-	12	35	48	11	-	59	151	71	186	38.2
MD	7	13	2	-	15	47	51	7	-	58	141	73	188	38.8
MA	27	11	0	-	11	40	38	7	1	46	160	57	200	28.5
MI	11	8	3	-	11	38	25	17	-	42	110	53	148	35.8
MN	17	10	6	-	16	67	35	13	-	48	134	64	201	31.8
MS	50	4	5	-	9	52	8	7	-	15	122	24	174	13.8
MO	34	6	3	-	9	34	19	21	-	40	163	49	197	24.9
MT	23	11	2	-	13	50	21	11	-	32	100	45	150	30
NE	26	-	-	14	14	49	-	-	-	단원제		14	49	28.6
NV	1	9	1	-	10	21	18	5	-	23	42	33	63	52.4
NH	14	7	3	-	10	24	109	26	-	135	400	145	424	34.2
NJ	20	9	1	-	10	40	21	6	-	27	80	37	120	30.8
NM	13	6	2	-	8	42	24	7	-	31	70	39	112	34.8
NY	16	14	5	-	19	63	46	4	-	50	150	69	213	32.4
NC	33	6	4	-	10	50	23	10	-	33	120	43	170	25.3
ND	43	4	7	-	11	47	8	11	-	19	94	30	141	21.3
OH	30	4	4	-	8	33	19	8	-	27	99	35	132	26.5
OK	42	5	4	-	9	48	11	12	-	23	101	32	149	21.5
OR	4	7	2	-	9	30	22	5	-	27	60	36	90	40
PA	30	7	6	-	13	50	31	23	-	54	203	67	253	26.5
RI	10	14	2	-	16	38	26	1	-	27	75	43	113	38.1
SC	45	2	2	-	4	46	12	11	-	23	124	27	170	15.9
SD	38	2	4	-	6	35	4	15	-	19	70	25	105	23.8
TN	48	4	4	-	8	33	4	8	-	12	99	20	132	15.2
TX	38	3	6	-	9	31	28	6	-	34	150	43	181	23.8
UT	36	4	2	-	6	29	12	7	-	19	75	25	104	24
VT	4	10	-	-	10	30	41	14	7	62	150	72	180	40
VA	32	7	3	-	10	40	22	5	-	27	100	37	140	26.4
WA	3	12	8	-	20	49	31	10	-	41	98	61	147	41.5
WV	49	0	3	-	3	34	8	8	-	16	100	19	134	14.2
WI	29	6	2	-	8	33	18	10	-	28	99	36	132	27.3
WY	47	1	5	-	6	30	4	4	-	8	60	14	90	15.6
합계		331	165	14	510	1,972	1,116	497	8	1,621	5,411	2,131	7,383	28.9

출처: Election Watch of Center for American Women and Politics(CAWP)홈페이지 검색일 2019.8.25.)

* 동 통계에는 Washington, DC와 5개 해외속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19년 현재 미국의 50개 주의회에서의 여성의원 현황은 위의 <표5>와 같다. 주 상원 의원은 1,972명 중 510명(25.9%)이 여성이었고 이중 민주당은 331명(65%), 공화당 165

명(35%)이었다. 주하원의원은 총 5,411명 중 1,621명(30%)이 여성이었고, 이중 민주당은 1,116명(68.8%), 공화당은 497명(31.2%)이었다. 50개 주 전체에 있어서는 7,383명 중 2,131명인 28.9%가 여성이었다. 2017년의 24.8%에 비해 4% 증가하였다. 주별로 여성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네바다(NV)주로 52.4%로 절반을 넘었다, 다음은 콜로라도(CO) 주가 47%, 와싱턴(WA)주 41.5%, 오레곤(OR)주와 버몬트(VT)주가 각각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50개 주 중 40%이상의 여성대표성을 보인 주는 5개 주였다. 가장 낮은 대표성을 보인 주는 50위인 미시시피(MS)주로 13.8%, 49위는 웨스트 버지니아(WV)주 14.2%, 48위 테네시(TN)주 15.2%의 순이었다.

2018년 중간선거 결과로 구성된 연방의회와 주의회에서의 여성대표성은 각각 4% 정도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연방의회는 1993년 10%대에 진입한 이후 25년여 만에 20%대로 진입해 23.7%의 여성대표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연방의회와 주의회 모두 민주당의 여성대표성이 공화당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높았다.

2020년, 미국정치의 여풍(女風)은 지속될 것인가?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로 시작된 미국정치의 변화는 과연 2020년에도 지속될 것인지 특히 자칭 사회주의자임을 선언하고 미국정치의 금기를 넘고 있는 비백인, 초선, 진보 여성들의 새로운 정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자신들이 대변하는 몫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2020년의 새로운 여풍을 일으키기 위하여 도전장을 내밀었다.

2019년 8월 현재 제46대 미국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여성후보는 민주당 소속의 5명의 여성이 있다. 툰시 개버드(Tulsi Gabbard, 1981년생)후보는 하와이주 연방하원의원이다. 2002년 21살에 하와이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1964년생)후보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무장관(2011-2017)을 역임했고 변호사였다. 아미 클로부커(Amy Klobuchar, 1960년생)는 변호사이며 미네소타 주의 연방 상원의원이고 동 직에 3번 당선되었다.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1949년생)후보는 2013년 이후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파산법을 가르쳤다. 마리안느 윌리엄슨(Marianne Williamson, 1952년생)은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이다. 에이즈 및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자원봉사단체인 프로젝트 엔젤 푸드의 창립자이다. 2014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무소속으로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었다.

2020년 연방 상·하 양원 출마예정 여성후보들은 미국여성정치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상원의원 후보는 48명, 하원의원 후보는 333명이다. 상원의원의 경우 민주당 33명, 공화당 15명, 하원의원의 경우 민주당 234명, 공화당 99명으로 민주당 출신 여성후보들이 2배 이상 많다. 2018년 중간선거에 출마한 상원의원 여성후보 23명, 하원의원 후보 235명이었던 것에 비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비후보들의 경선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는 여성, 동성애자, 난민, 무슬림, 유색인종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정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놀랍게도 지난 2년 동안 이런 차별과 혐오정치의 정점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었다. 정치인의 혐오발언은 일반시민들에게 면죄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적이다. 도덕과 윤리, 정의의 이름으로 억제되었던 차별과 혐오언행들이 시민권을 획득하여 온오프라인의 거리를 활보하게 만들었다. 2020년은 한국에서도 제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2020년을 여성이 이끄는 변혁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 여성은 단지 여성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여성은 이처럼 차별과 혐오로 소외된 모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여성들의 수적 대표성이 여전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여성 안에는 무수한 차이가 있으며, 이 무수한 차이를 정치의 장에 가시화시키는 역할을 여성이 하기 때문이다. 여성정치의 바람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 관점의 개발협력 사업 접근 방식 : 한국 월드비전 케냐 북테소 지역 여아 역량강화 사업 중심으로

최정윤 한국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과장*

이수민 한국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과장**

들어가며

유엔인구기금(UNFPA)은 여아들이 당면하는 많은 문제에 대해 여아들의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를 그 원인으로 보았다.¹⁾ 여아 배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예외적이지 않다.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높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아들의 필요는 개발협력 사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식수위생 분야에서 깨끗한 물 공급과 위생적인 화장실 설치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여아들의 월경위생관리를 위한 물과 화장실 접근성 보장에 대해 강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²⁾ 특별히 교내 월경위생관리의 경우 여아 교육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교내 월경위생관리는 그 중요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집중이 미비했던 영역이다. 또한 모자보건 분야에서도 십대 산모는 성인 여성에 비해 취약성이 높고 특수한 필요를 갖고 있음에도 주변의 시선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으며 산전·후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의 결과는 높은 십대 산모의 사망률과 십대 산모가 출산하는 신생아의 높은 사망률로 나타난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여아들의 좁은 입지로 인해 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

* 젠더와 국제개발을 전공하고, 2009년부터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시작하여 현재는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에서 아동보호와 젠더 포컬로 젠더 사업을 기획 및 관리하고 있음.

**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교육개발협력 사업과 연구를 담당한 후 현재는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에서 케냐의 중장기 지역개발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1) https://www.unfpa.org/sites/default/files/sowp/downloads/The_State_of_World_Population_2016_-_English.pdf

2) <https://washmatters.wateraid.org/publications/menstrual-hygiene-matters>

3) <http://www.who.int/en/news-room/fact-sheets/detail/adolescents-health-risks-and-solutions>

월드비전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기구로 ‘가정과 지역사회 내의 아동 삶의 질 향상, 특히 가장 취약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사업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월드비전의 이러한 사업적 방향성을 고려할 때 여아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취약한 대상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 내 오랜 시간 자리 잡아 온 불평등한 젠더 규범과 일부 문화권에 만연해있는 여성할례, 조혼, 명예살인 등과 같은 젠더 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으로 인해 여아는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배제와 취약성 해소를 위해 진행하는 월드비전의 케냐 북테소 지역 여아 역량강화 사업을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의 배경

한국 월드비전은 2017년부터 케냐 북테소 지역 앙구라이(Angurai) 지역개발사업장에서 학교를 기반으로 전기 청소년기(10-14세) 아동에 집중하여 교내 월경위생관리와 젠더 기반폭력에 대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간다 접경 지역에 위치한 앙구라이는 케냐 몸바사 항에서 들어오는 물자의 이동 통로로, 이곳에서는 트럭 기사들이 우간다로의 진입 허가를 받기 위해 며칠씩 대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기사들에 의한 아동 성매매가 종종 이루어지는데, 성매매가 흔한 이 지역에서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존중이 낮아 다양한 종류의 젠더기반폭력이 일어난다. 본 사업의 기초선 결과보고서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듯이, 앙구라이 지역에 십대 임신율이 높은 것은 조혼 및 성폭력과 같은 젠더기반폭력이 이곳에 만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아들은 이러한 폭력의 위협에도 가정, 학교,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할 창구가 마련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그간 월경위생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필요조차 요청하지 못해 이로 인한 어려움은 고스란히 여아들의 몫으로 남아있었다. 이렇듯 여아들은 폭력의 위협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침묵해야만 했다. 이에 월드비전은 두 가지 주요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있어 여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여아만을 대상으로 하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 및 여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 관계자를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개인부터 커뮤니티까지 각 층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회 생태학적 모델(social-ecological model)을 활용한다. 그리고 사업이 기존의 왜곡된 젠더 규범을 강화하거나 불평등을 심화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불평등한 기존의 규범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는 접근법(gender-transformative approach)을 활용한다. 두 접근법의 실제 적용을 케냐 북테소 지역 여아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사회 생태학적 모델(social-ecological model)⁴⁾

사회 생태학적 모델은 유니세프의 개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C4D) 접근법과 같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행동 및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데 있어 층위별 상호작용을 볼 수 있으며, 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본 사업은 [그림 1]과 같이 사회 생태학적 모델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1] 케냐 사업에 적용된 사회생태학적 모델

● 개인적 변화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women empowerment)는 북경여성회의에서 강조되어 현재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에서 주요 담론으로 이어져 왔다.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재생산 영역에 있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의 선택을 강조한다.⁵⁾ 본 사업에서도 개인 차원에서는 여아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월드비전은 여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에 기반을 둔 참여적 방식의 성교육 커리큘럼을 사용하는데, 이는 케냐와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 자나 아프리카(Zana Africa)가 개발한 니아 예투(Nia Yetu) 커리큘럼이다. 이는 유네스코의 통합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4)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publichealthissue/social-ecologicalmodel.html>

5) <https://www.unfpa.org/resources/issue-7-women-empowerment>

education)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쉽고 재미있는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⁶⁾ 또한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잡지를 통해 아이들이 실제적이고 최신의 성생식보건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무기명으로 성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큰 장점이다. 인권기반 참여적 방식의 성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단순히 성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돕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진행 되는 월드비전의 생활기술교육(life skills-based curriculum)을 통해 협상 및 상호존중과 같은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여아 클럽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한다.



출처: 월드비전 내부자료

[사진 1] 지역사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여아 클럽 활동

여아 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여아를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수혜자로 제한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사업에서 여아들은 그들이 배운 내용을 여아 클럽 활동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 실천한다. 예를 들어, 조혼과 같은 문제를 연극이나 노래로 만들어 공문화하고, 조혼 근절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앞장서서 진행한다.

6) <http://www.zanaafrica.org/research-the-nia-project>

● 관계적 변화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여아뿐만 아니라 여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 변화 또한 사업의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남아는 사업의 중요한 대상인 동시에 학교에서 여아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주요한 이해 관계자이다. 본 사업에서 집중하는 남녀아 간의 관계 변화의 키워드는 화해(reconciliation)이다. 여아 사업에서 대부분의 활동이 여아에게만 집중되어 자칫하면 남아는 소외되기 쉽다. 나아가 남아를 가해자로 인식해 남아와 여아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젠더기반폭력은 두 집단 사이의 권력관계에 기인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폭력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결구도를 심화시키는 것보다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⁷⁾

남아의 경우, 포래 압박(peer pressure)이 젠더기반폭력을 행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 긍정적인 남성상을 소개하는 이유이며, 포래 교육이 청소년기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이유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남성상을 제시할 수 있는 롤모델을 선발하고 소개함으로써 남성들이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해 함께 싸우도록 독려한다.⁸⁾

본 사업에서 먼 생리대 만들기 수업에 남여아를 함께 참여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함께 생리대를 만들며 남아들은 여아들의 특별한 필요와 어려움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월경으로 인해 여자 친구들을 놀리지 않게 된다. 나아가 다른 친구들이 여아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 여자 아이들 편에 서서 함께 대처한다.



[사진 2] 남아와 여아가 함께 참여하는 먼 생리대 만들기 수업

7) <https://plan-international.org/ending-violence/gbv-gender-based-violence>

8) https://www.unicef.org/adolescence/files/UNICEF_Programme_Guidance_for_the_Second_Decade_WEB.pdf

● 조직적 변화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으로 사회에서의 나쁜 관습과 문화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곳이다. 젠더기반폭력의 경우도 그러하다.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젠더기반폭력은 학교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는 젠더기반폭력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를 끝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이다.⁹⁾

스포츠를 예로 들어보면, 교내에서 여아를 위한 스포츠 활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성 평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다. 왜냐하면 여아의 스포츠에의 제한적 접근이 여아의 제한적인 사회 참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여아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남아에 비해 낮은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갖고 있는 여아들에게 자존감 회복과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다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유익함도 있지만, 여아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스포츠가 남성과 남아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에 도전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스포츠팀은 여아가 자신의 문제와 질문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한 대화 공간(safe space)인 동시에 이를 통해 여아들의 연대가 공고해지기도 한다.

여아 클럽 역시 여아의 교내 참여 제고를 위한 플랫폼으로, 이곳에서 여아는 그들이 교내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행동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여아의 개인적 역량도 강화되지만, 여아들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이 제시되어 기존의 젠더 규범에 도전하게 된다.

교내 젠더 규범의 변화를 위한 노력만큼이나 여아의 현실적 필요에 대응하는 시설과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월경위생관리의 경우, 그간 여아들은 문화적 금기로 인해 이와 관련된 당연한 필요를 요청하거나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다. 이제는 월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그에 따른 실제적 필요도 충족되어야 한다. 본 사업은 교내에 여아 친화적 화장실과 생리대를 제공한다. 여아 친화적 화장실은 남/여와 교사/학생의 사용이 구분되며, 화장실 내부에 잠금 시설과 수도 시설도 설치하여 필요시 세척이 용이하도록 한다. 또한 휴지통 혹은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생리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여아의 안전과 존엄이 훼손되지 않는 환경에서 월경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젠더기반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함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교사를 지정하고 교육한다.

9)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6651>

10) <http://guides.womenwin.org/ig/about/empowering-girls-through-sport>

● 사회적 변화

월드비전 사업의 특징은 섹터를 불문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어떤 분야이든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이를 위해 지역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주도형 정책개선사업(Citizen Voice and Action)은 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부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다. 조혼과 같은 이슈는 실정법과 관습법 사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마을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지방 정부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현실을 알리는 한편, 정책 변화를 위한 옹호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어져온 조혼 및 여성할례와 같은 젠더기반폭력에 대응하고, 새로운 젠더 규범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지역 사회 전체가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오며

월드비전 케냐 북테소 지역 여아 역량강화 사업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사회 생태학적 모델(social-ecological model)을 통해 층위별로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면서, 학교에서의 활동에 가장 집중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제 막 월경을 시작한 여아 및 또래 남아를 대상으로 하여 자신에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균형 잡힌 성 인식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 사회의 축소판, 학교

학교는 아동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또래 집단과의 교류와 교육을 통해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곳이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으로 사회의 부정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인 동시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학교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향후 지역사회로의 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

● 사고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 전기 청소년기

전기 청소년기(10-14세)에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며 몸의 변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남/여아 모두는 이 시기에 자신의 몸의 변화로 인해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고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고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균형 잡힌 성 인식을 교육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여아의 경우 월경을 시작하며, 바른 월경위생관리 습관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변의 위험을 인식하여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다. 남아의 경우, 또래 압박이 젠더기반폭력을 행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듯이 반대로 또래 압박을 활용하면 남아에게 긍정적인 남성상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다.¹¹⁾

한마디로 전기 청소년기의 아동에게 학교라는 플랫폼을 통한 접근은 예방적 차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아동은 균형 잡힌 성 인식을 갖게 되고, 그간 답습되어 오던 왜곡된 성 규범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한 논의

베이징행동강령 25주년 및 SDGs 5년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기 위한 글로벌 성 평등 포럼 (Global Forum for Gender Equality) 이 있을 2020년은 국제사회에서 여성 인권 및 성 평등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더 도약 시키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정부, 그리고 다양한 계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경험의 더욱 활발히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 논의에서 젠더 사업 내에서 단순히 표면적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닌, 성 불평등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기존의 젠더 규범에 도전하는 동시에, 외부에 의해 일어나는 일회적인 움직임이 아닌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변화들이 담보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공유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Wateraid global website. "Menstrual hygiene matters -training guide".

<https://washmatters.wateraid.org/publications/menstrual-hygiene-matters>에서 2019.9.2. 인출

World Health Organization(2018.december.13). "adolescents-health-risks-and-solutions".

<http://www.who.int/en/news-room/fact-sheets/detail/adolescents-health-risks-and-solutions>에서 2019.9.2. 인출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ocial-ecological model".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publichealthissue/social-ecologicalmodel>에서 2019.9.2. 인출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website. "Issue 7: Women Empowerment"

<https://www.unfpa.org/resources/issue-7-women-empowerment> 에서 2019.8.1. 인출

11) https://www.unicef.org/adolescence/files/UNICEF_Prog_Guidance_04.11.18.pdf

Zanaafrica website. "Research: The Nia Project"

<http://www.zanaafrica.org/research-the-nia-project>에서 2019.7.29. 인출

Plan international website. "Gender-Based Violence"

<https://plan-international.org/ending-violence/gbv-gender-based-violence>에서
2019.8.7. 인출

Unicef. "UNICEF Programme Guidance for the Second Decade"

https://www.unicef.org/adolescence/files/UNICEF_Programme_Guidance_for_the_Second_Decade_WEB.pdf에서 2019.7.31. 인출

UNESCO Digital Library. "Global guidance on addressing school-related gender-based violence"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6651>에서 2019.7.30. 인출

Womenwin, "Empowering Girls Through Sport".

<http://guides.womenwin.org/ig/about/empowering-girls-through-sport>에서
2019.9.2.인출